

INTERPRETING WORLD HERITAGE

포용적 세계유산
해석설명으로 가는 길



고레 섬(Island of Gorée)



세네갈의 고레 섬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1978년 최초로 등재된 12개의 유산 중 하나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노예무역을 상기시키는 곳이다. 이곳의 건축은 노예무역상의 대저택과 노예들의 막사가 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곳은 화해의 장소이자 인간 착취의 역사를 증언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유네스코(UNESC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1945년 창설된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UNESCO WHIPIC)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한 유산의 이해 증진과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입니다.

발행처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발행일	2022년 12월 19일
발행인	채수희
편집장	이재순
편집인	이수정, 최솔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홈페이지	https://unesco-whipic.org
편집디자인	김형윤편집회사

05

Director General's Note

창간호 발간에 즈음하여
채수희 WHIPIC 센터장

06

Welcome to WHIPIC

세계유산 해석의 부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심혜리 WHIPIC 교육협력실장

08

Special Editorial

동행 08
변화의 시대,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Neil Silberman

포용 11
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 변화의
포용적 해석과 제시
William Logan

실천 14
모두를 위한 해석
James Carter



©shutterstock

CONTENTS**창간호**

16

HI World

아프리카 16
아프리카 공동체의
재연결
Pascall Taruvunga

아랍 18
유산의 고유한 의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접근방법
Zaki Aslan

아시아 태평양 20
근대갈등을 넘어선 불편유산,
함께 듣는 공유의 목소리
Shu-Mei Huang

라틴, 카리브해 22
라틴 아메리카 유산 해석의 발현
Jon Kohl

유럽 24
꽃과 수프
Valya Stergioti

북아메리카 26
고고학과 문화유산
해석 설명의 동향
John H. Jameson

28

HI People

유네스코 WHIPIC 전문가 좌담회 :
보존과 개발의 간극을 잇는
유산 해석설명

34

HI Good Practices

조화로운 유산 해석
포용적 계획이 사회를 연계한다
잔지바르 석조도시 사례
Muhammad Juma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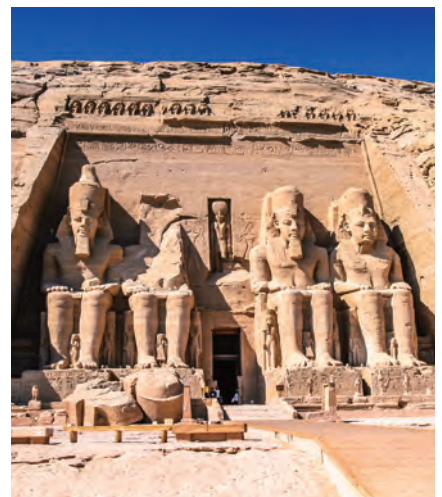
My World Heritage

누비아 유적
아부 심벨에서 필레까지
Heba Alders

42

WHIPIC Project Updates

WHIPIC 2022



©shutterstock

INTERPRETING WORLD HERITAGE

unesco-whipic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 로고에 사용되고 있다.

창간호 발간에 즈음하여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금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가 발족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세계유산의 올바른 이해와 보호를 위하여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협약(1972년)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II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센터는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유네스코의 승인을 거쳐 출범하였습니다. 조직의 체계를 정립하고 업무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포용적 유산 해석설명을 위한 연구,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유산정보 시스템의 토대 구축, 세계유산기구 간 전문가 교류 증진 및 대내 기관과의 국제협력 연대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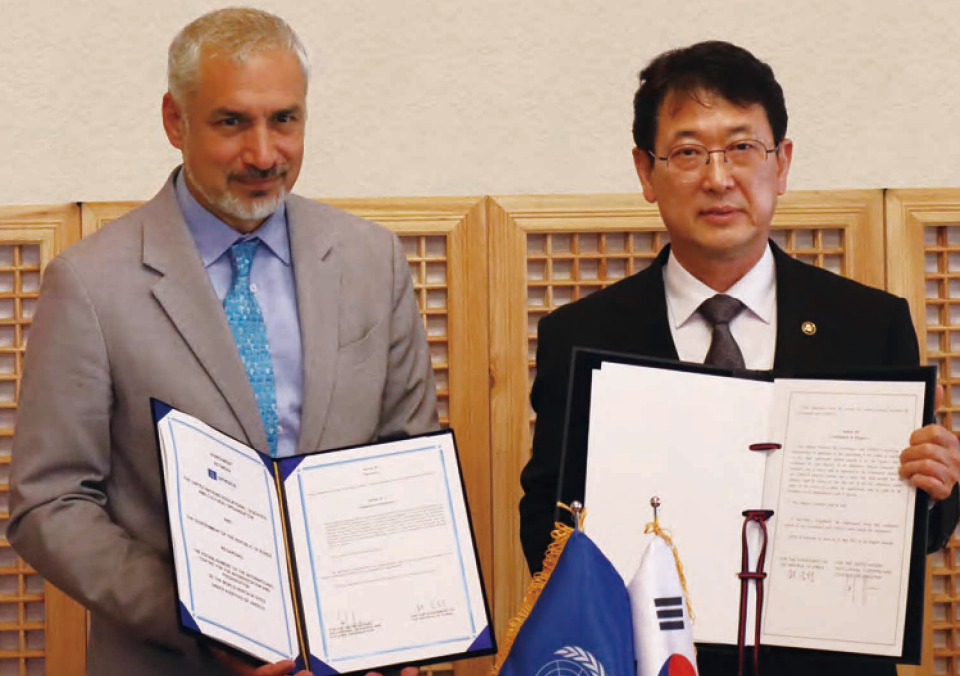
현재 세계유산의 해석설명에 관한 관점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의 협소한 유산 해석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의 보편적 해석과 설명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은 지역, 성별, 연령, 기술적 소외계층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어 세계유산의 개발과 보존 측면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다양한 국제기구는 물론 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 세계와 유산, 그리고 사람을 잇는 가치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시대와 공간을 연결하는 유산의 상생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번 창간호는 포용적 세계유산의 해석설명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특별기고, 유네스코 지역분류에 따라 나눈 여섯 개 지역의 유산 해석설명, 마지막으로 세계유산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나뉘어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세계유산 해석설명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에게도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더 나은 유산 이해, 모두와 소통하는 세계유산 정보, 더불어 행동하는 국제협력과 연대를 통해 화해와 상생, 인류의 평화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채수희 센터장



에르네스토 오토네 라미레스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와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센터 설립 협정
체결식에 참가하였다.

세계유산 해석의 부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심혜리

WHIPIC 교육협력실장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을 맞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약칭 WHIPIC)가 대한민국 세종 시에 설립되었다. 센터는 유산 해석을 전담으로 하는 유네스코 산하 첫 공식 기관으로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의 협정 아래 세워진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센터다. 연구, 역량강화, 정보화라는 세 기능을 축으로 하는 센터는 세계유산의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고 유산을 포용적으로 이해,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의 설립은 세계유산협약 채택 후 50여 년의 세계유산의 보존 역사에서 해석과 설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아테네 현장과 베니스 현장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출범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에 치중돼 있었다. 이후 호주에서 버라 현장(1979)이 발표되면서 유산은 단순한 '기념물(Monument)'이 아닌 사회적·역사적 의미가 깃든 '장소(Place)'의 관점으로 그 인식이 확장되었다. 이어 1992년 세계유산에 '문화 경관(Cultural Landscape)'이 도입되면서 유산은 문화나 자연이냐의 이분법적인 구

분에서 인간과 자연의 합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승화되었다. 20년 넘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계유산 프로그램이 유럽 및 일부 지역에 편중돼 운영되고 있으며 유산과 관련된 주요 개념이 서구 중심적이라는 문제의식은 세계유산에 문화적 다양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움직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목록에서 과소대표된 지역의 등재를 제도적으로 독려하는 ‘세계유산 목록의 글로벌 전략(1994)’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되었고, ‘진정성에 대한 나라 문서(1994)’를 통해 유산의 가치나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고정된 기준이 아닌 각 나라의 맥락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03년에 채택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협약은 세계유산의 무형적 가치와 유산을 둘러싼 공동체를 유산의 보존 과정 가운데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 유산의 보호뿐 아니라 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유산을 향유하는 면이 중요해지면서 유산의 해석과 설명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2008년 이코모스는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헌장’을 발표하였다. 현재 WHIPIC은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 헌장을 바탕으로 유산의 해석과 설명의 기본 개념과 정의를 재논의하고 있다.

이렇듯 유산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계기와 문제를 통해 그 개념이 진화해왔고, 오늘날에는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해석하고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이 물리적 보존만큼 중요’(Cameron 2021) 해졌기 때문에 유산에 대한 해석과 설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WHIPIC은 현재 기본개념의 재정립을 포함해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토대를 쌓는 사업들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강연 시리즈’와 ‘분쟁유산 웨비나’ 등을 통해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국제적 공론의 장을 펼쳐온 WHIPIC은 올해부터 센터의 주요 기능에 따라 사업을 연구, 역량강화, 정보화로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센터의 ▲연구 분야에선 해석과 설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쟁점의 연구를 하기 위해 이론, 정책, 주제, 지역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각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석과 설명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전 세계 분쟁유산의 현황을 파악하며, 각 해의 주요 의제에 따른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역량강화 분야에선 크게 세계유산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제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역량강화 툴킷을 개발 중이며, 유산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운영하고, 국제 강연·웨비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산의 해석과 설명이 전문가만의 영역이 되지 않도록 대중의 참여를 진작시키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화 분야는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국적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 유산 해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유산 설명의 디지털 방식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유산 해석에 대한 담론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 Interpreting World Heritage와 WHIPIC Newsletter를 제작해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유산의 보호라는 세계유산협약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센터엔 20여 명의 직원들이 여러 국가의 유산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 센터는 포용적인 유산의 담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전 세계유산 현장과 손잡고 협력할 계획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임무를 맡은 신생 센터에 많은 관심과 제안,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문헌

Cameron, Christina. 2021. UNESCO WHIPIC's Webinar Series: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동행

변화의 시대,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Neil Silberman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명예교수



©imagetoday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채택 50주년은 세계유산 관리 과정에서 해석과 설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맞아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뜻 깊은 순간이다. 현재 세계유산 프로그램과 문화유산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심각한 문제를 보자면, 기후변화와 폭력적인 문화 간 갈등,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 전례 없는 도시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석과 설명에 대중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 세계유산협약 체결 이후 수년에 걸쳐 발생한 고무적인 사건과 이론적인 발전 중에서도 향후 수십 년 뒤 세계유산 지역에서 문화유산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효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그리고 그 이론적 발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채택이 최초로 비준되고 이행된 이후 수십 년간 세계유산 관리 과정과 실제로 모든 유산 관련 활동에서 해석과 설명의 역할은 눈에 띄게 확대됐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와 네트워킹, 그리고 역량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중심 활동으로서 세계유산의 해석 설명을 위한 국제적 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해석’과 ‘설명’이라는 용어는 많은 유산 전문가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세계유산에 대한 과학적 문서화와 물리적 보존을 위한 기술적 작업의 부차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협약 당사국들의 잠재목록에 수록될 유산 선별부터 지정, 등재 가능성, 등재될 경우 장기적인 보존 및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이르는 세계유산 관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인 용어이자 요소로 자리 잡았다.

“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을 채택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유산 해석과 설명은 사람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점차 대중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세계유산 관리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Ripp and Rodwell 2018). 점차 대중의 인식 및 참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고 평화 구축, 인권, 포용성, 다양성 및 문화 간 이해라는 대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모든 형태와 매체(현장, 온라인, 공개 포럼 및 강의실의 강연 등)를 통한 문화적 소통의 자극과 공감은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에 있어 외부의 침입, 또는 생계에 대한 방해 요소로 여겨질 지, 아니면 현지 주민 및 관련 집단에게 올바르게 관리되고 존중받을지를 결정하는 열쇠이다. 실제로 세계유산협약을 평등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행하고, 해당 협약에 포함된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 1,100개 이상의 유적지를 보호하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해석과 설명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연구와 상세한 사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유산 관리 및 보존 활동과 관련하여 해석과 설명의 중요성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해석과 설명이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학문적 담론의 ‘대중화(Popularisation)’, 또는 프랑스어로는 ‘통속화(Vulgarisation)’를 초월하게 되었나?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의 지정학적 격변과 유산 정책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자의식 고조와 인권 운동의 세계적인 확산, 역동적인 아시아 사회의 경제적 부상, 토착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존중으로 인해 그간 주로 기념비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중점을 뒀던 유산 이론에 대한 반박이 일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의구심 없이 수용되려면 다양한 대안적 관점에 대처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모든 유산 관리 조직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지정학적 및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사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20세기의

마지막 10년과 21세기의 초반 10년 사이 몇몇 주요 유산정책 개발은 완전히 물질적인 기반에서 점차 무형적인 기반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가장 먼저 이룩하게 된 발전은 여러 논의를 거쳐 나라 문서(Nara Document)의 초안을 작성하게 된 것이었다. 나라 문서는 진정성이 물리적 잔재뿐만 아니라 디자인, 재료 및 기능의 문화적 연속성에도 고르게 기인하며 거듭 재건을 거쳐왔거나 최근 재건된 유적지에서도 존재한다고 시사했다(Larsen 1995).

정확한 날짜나 형식적 건축 유형 또는 과학적 조사만 큼이나 기억과 전통을 토대로 하는 문화적 기술과 표현의 연속성으로 인해 유적지의 무형적 전통과 독특한 문화적 표현의 중요성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교한 해석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 동시에 세계유산이 유럽과 북미에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아시아와 남반구 당사국들로부터 세계유산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1994년,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고르게 대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유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Rao 2010)이 제시됐다. 더불어, 전통문화와 그간 간과되어 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세계유산의 모든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맥락에서의 다양성과 다양한 가치가

새롭게 강조되었다.

유산 해석과 설명의 본질적인 성격 또한 바뀌는 추세였다(Staiff 2014). 여전히 탄탄한 학문 및 실증적 증거는 효과적인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요소로 남아 있지만, 점차 전문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대중이 적극 참여하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혁명이 불쏘시개가 됐다.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와 관심도 ‘장소’ 자체에서 점차 멀어졌다(Freeman 2018).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역시 가상 및 증강현실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고가의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 제공을 위해 방문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경험적 기술력을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지역사회 정체성 표출을 위한 매개체로서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Albert *et al.* 2012) 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대중의 참여는 필수가 됐다. 유산 해석가와 설명 기획자는 더 이상 Laurajane Smith가 ‘공인된 유산 담론(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Smith 2006)’이라고 지칭했던 사실과 서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지역사회와 오랫동안 소외된 집단에 대한 유산 자원의 관련성과 접근성을 넓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역사가이자 문화정책학자인 Dipesh Chakrabarty가 지적했듯, 박물관 업계에서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2002). 박물관 업계에서 기존의 하향식 교육 접근 방식은 Chakrabarty가 ‘수행적(Performative)’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한 적극적인 대중 참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체됐다.

대중, 특히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시민적 가치를 주입하는 1차적인 책임에서 문화유산 커뮤니케이션은 때때로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중시하는 과거에 대한 생생한 성찰이 되기도 했다. 문화 간 관용과 편협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유산에 대한 해석과 설명의 영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대한 소셜미디어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대중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유산 해석의 모든 실무자에게 당면한 과제다.

세계유산협약을 체결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유산 해석과 설명은 사람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에 대한 성찰에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유산, 그리고 그 이상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whipic**



세계유산협약 50주년 기념페이지, WHC

©shutterstock Anton Ivanov

참고문헌

- Albert, Marie-Theres, Marielle Richon, Marie José Viñals, and Andrea Whitcomb, eds. 2012.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World Heritage*, vol.31. World Heritage Papers. Paris: UNESCO.
- Chakrabarty, Dipesh. 2002. Museums in Late Democracies. *Humanities Research* 9(1): 5–12.
- Freeman, Cristina Garduno. 2018. The Implications of Online Connectivity for World Heritage in a Digital Platform Society. *Historic Environment* 30(3): 84–95.
- Larsen, Knut Einar. 1995.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in Relation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rondheim, Norway: Tapir Publishers.
- Rao, Kishore. 2010. A New Paradigm for the Identification, Nomination and Inscription of Properti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3): 161–172.
- Ripp, Matthias, and Dennis Rodwell. 2018. Governance in UNESCO World Heritage Sites: Reframing the Role of Management Plans as a Tool to Improve Community Engagement. In *Aspects of Management Planning for Cultural World Heritage Sites: Principles, Approaches and Practices*. Simon Makuvaza, ed. pp. 241–253.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Salazar, Noel B. 2016. The Local-to-Global Dynamics of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In *World Heritage, Tourism and Identity: Inscription and Co-Production*. Laurent Bourdeau, Maria Gravari-Barbas, and Mike Robinson, eds. pp. 133–142. London: Routledge.
- Smith, Laurajane. 2006. *Uses of Heritage*. London; New York: Routledge.
- Staiff, Russell. 2014. *Re-Imagining Heritage Interpretation: Enchanting the Past-Future*. Farnham, Surrey, England; Burlington, Vt: Ashgate Publishing.

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 변화의 포용적 해석과 제시

William Logan

호주 디킨대학교 명예교수



호주 어보리진 축제의 무용수들

©shutterstock

결핍 및 패러다임 변화

해석과 설명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서, 현장 그 자체의 유적지와 이를 감상하는 사람들을 연결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유적지를 이해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해석과 설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주요 유적지 구조물에 대해 간략한 기술적 요소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유형의 정체성을 가진 방문객만을 염두에 둔 채, 다른 언어로의 기술 혹은 삶의 경험이나 교육 및 관심 수준 정도의 방문객을 두루 수용하기 위

한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제적 혹은 내부적 갈등과 관련한 장소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기억할 때, 민족주의적 해석과 설명은 일반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심지어 긴장을 유지하거나 증폭시키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유엔과 유네스코가 헌법적 목적으로 가장 우선하는 ‘더욱 평화로운 세상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유적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때때로 매우 편협하고 이념적이며, 나아가 선동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는 유적지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가 공인하는 하향식 견해를 제시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접근법은 점차 관련 분야와 유네스코 내부 학자와 실무자들의 반박을 받아왔다. 특히 유엔과 유네스코가 선언한 포부와 채택된 정책에 위배되기에 더 이상 모범사례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때 많은 문화재 전문가가 유물이나 기념물, 또는 유적지를 보존하거나 복원하기 위해 최선의, 최선의 과학적 해결책을 적용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여겼던 문화재 보호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Logan 2008: 443). 이것은 부분적으로 1990년대부터 '사람에게 구현된 살아 있는 유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이러한 노력은 유네스코가 국제정부 기구인 상황에서,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모두 자국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이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확실히 해당 지역주민과 기타 소수집단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 또는 무형문화유산 대표로 등재되기 전, 해당 장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해석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자유롭고 사전에 공지된 동의권(Consent)이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유산 지정은 유산을 관리하는 공식 당국이 승인한 해석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거의 대부분 정치적인 입장이 반영되고,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사회에 입각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은 문화유산 해석과 관련해 잠정적인 목록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세계유산목록 등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유산의 가치와 설명에 대한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2011년, 유엔 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토대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요구가 충족되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사회 세계(UN 2015: 제8항)'를 강조한 '2015년 이후 개발 의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산 지정 및 등재 절차의 민주화를 향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 의제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립한 일련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가장 뒤처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며, 국제 인권법을 준수해 성 불평등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UNSDG 2015)'였다.

유엔 접근방식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더 이상 물리적 환경과 관련한 친숙하고 편협한 접근방식이 아닌 인권, 평등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세 가지 원칙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포괄적인 사회 개발, 포용적 경제 개발 및 평화와 안보의 육성이라는 네 가지 주요 요소에 기반한 개념으로서 지속가능성을 구상하는 포괄적인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을 세계유산협약 이행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유네스코 정책에서 정식 채택됐다. 유산 등재와 관리는 형평성과 인권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해 세계유산시스템에 대해 이 정책이 지닌 의미는 중요하다. 유네스코 정책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지 지역사회와 토착민 포함

유네스코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보호 목적과 수단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여, 유네스코의 다양한 협약에 따른 문화유산 및 문화다양성 보호를 목표로 하는 사업에 회원국과 협력하는 선도적인 조직이다. 유네스코는 최소한 2003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보편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 연결' 컨퍼런스 이후, 유산 보호는 정부의 하향식 개입이나 유산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지역사회 또한 동참해야 할 문제라는 관점을 장려해왔다.

인류의 유산 자원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리 시스템과 함께 지역사회의 가치와 관행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 및 장려하며, 그러한 가치와 관행을 유산관리 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유네스코는 주장하고 있다(UNESCO, 2004, 9). 이러한 노력으로 현지 지역사회에 각자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주인의식)을 부여하고 공동체로서의 가치와 일 처리 방식, 그리고 '문화'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ogan 2008: 443). 자신의 문화적,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각자의 생활 환경을 결정하는 발언권이야말로 기본적인 인권이다.



울루루 - 카타 추타 국립공원 호주

Shutterstock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은 문화유산 해석과 관련해 잠정적인 목록을 정하고 세계유산목록 등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유산의 가치와 설명에 대한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사국은 소수민 집단과 지역 주민을 찾아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산 해석, 등재 및 관리과정에도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당사국과 유산 지정 당사국 의견이 다를 때는 특히 초기 과정에서 잠재적인 긴장이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이행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은 제111항의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G)에서 선택되었지만 예상보다 의무적이지는 않다.

참고문헌

Logan, William. 2008. Cultural Heritage and Human Rights in B. J. Graham and P. Howard, eds.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Heritage and Identity*. Ashgate, Aldershot, UK; pp. 439-54.

Logan, William. 2022. Heritage interpretation, conflict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global issues in microcosm,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vol. 12, no. 1 (2022), pp. 5-18.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publication> (accessed 18 October 2022).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2015. *Universal Values*. Available at: <https://unsdg.un.org/2030-agenda/universal-values> (accessed 18 October 2022).

UNESCO. 2015. *Policy Document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vailable at: <http://whc.unesco.org/en/sustainabledevelopment> (accessed 18 October 2022).

UNESCO. 2021.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Revised edn. Available at: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accessed 18 October 2022).

위에 언급한 다양성을 인식하기 위해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의 공통 요소는 다음과 같다.

- a. 포괄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재산, 보편적, 국가적, 지역적 가치, 사회 생태학적 맥락에 대한 철저한 이해 공유
- b. 다양성, 형평성, 성평등, 인권 존중,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계획 및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 활용

운영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요구 사항은 이러한 포용성이 세계유산 해석 설명의 내용적 측면은 물론, 다양한 언어 기술과 전문적 역사적 지식과 관련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석에 대한 운영지침의 침묵은 특히 통탄할 만하다. 7항은 협약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제시, 그리고 미래세대로 전승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단순히 되새길 뿐이다. 운영지침의 다른 항에서 ‘해석’은 관광객과 그 밖의 방문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해석과 설명의 차이가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균형있는 해석을 위한 언급이 전무하다. 이런 결핍을 교정하는 것은 한참 전에 행해져야 할 일이다. 그리고 다음 운영지침의 수정에서 긴급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럼으로써 세계유산 장소의 해석, 등재, 관리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국위선양적인 해석에 기반한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한 다양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Logan 2022), [whc](https://www.whc.unesco.org/en/guidelines/)

실천

모두를 위한 해석

James Carter

유산해석협회 펠로우



1.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충전자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유적의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방문객의 참여가 ‘해석’의 목적이라면, 그들이 참여했을 때 더욱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문 동기를 제대로 분석하고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 장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상에 대한 기억과 자신의 생각, 관점의 전환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건주립대학교 연구원 John Falk는 해석을 위한 계획과 관련해 흥미로운 모델 하나를 제시했다(Falk 2009). 그가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방문객은 그들 스스로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방문객들이 유적지 방문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프로필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탐험가(Explorer)’로서 정체성은 새로운 이슈 발견과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경험과 감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방문한 장소를 이해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 또 여가 시간에 댄

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아이디어나 약간의 정보 수집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와 관심을 ‘조력자(Facilitator)’와 공유하고, 그들은 다시 가족 또는 친구와 공유하기도 한다. 조력자는 이처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미지 및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동반자들이 방문 장소에 대한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두 정체성은 전통적인 해석의 핵심적인 시장(전시회, 가이드 투어 및 1인 여행 등)으로 이어진다. 효과적인 해석을 위한 명확한 기준은 이 정체성의 요구와 학습 스타일에 적합하다(Ham 2013). 해석은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기보다 청중이 몇 가지 아이디어나 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짧고 명료한 정보와 주제를 잘 표현한 시각적 요소를 통해 쉽게 접근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청중 및 그들의 삶과 관련한 아이디어 제시한다.
- 청중에게 만족감이나 즐거움 제공한다.

‘경험추구자(Experience Seeker)’의 동기는 조금 색다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이는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장소를 방문한 사실에 보람을 느끼거나 심지어 경험해야 할 장소를 ‘버킷리스트’로 작성하기도 한다. 또 이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멋진 환경을 찾기도 한다. 이들은 기존 해석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셀카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식당이나 쇼핑 공간 이용에 적극 참여하는 열의를 보인다.

세계유산을 정의하자면, 인류 전체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유산에 참여하는 것(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길 원하거나 친구와 공유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있다는 인증 추구 방식)은 특히 세계유산과 관련이 있는 행위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유산과 접촉하는 유형은 탐험가나 조력자가 가진 지적인 목표보다 의미가 떨어진다고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경험추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유산을 통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유산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학문 방식과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2. 독일 브레머하펜(Bremerhaven)에 있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박물관은 방문자 간 대화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3. 캘리포니아의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에서는 카페의 포스터가 매력적인 장식 요소일 뿐 아니라, 환경 보존 메시지도 담겨 있다.
4. 뮤어우즈(Muir Woods) 충전자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유적의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5. 호주 소버린 힐(Sovereign Hill)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금을 채취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 경험은 그 장소의 관광 역사를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6. 애덤 스미스(Adam Smith) 동상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셀카를 찍는 인기 장소로 유명하다. 이는 도시의 역사적인 인물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 범주는 ‘취미활동가(Hobbyist)’ 또는 ‘전문가(Professional)’다. 이 정체성은 장소나 주제에 대한 전문가적 관심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더욱 상세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할 수 있고, 큐레이터처럼 직원들과 최신 연구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이들에게 강연 이벤트나 특별 이벤트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의 요구에 맞게 준비된 전시회는 탐험가와 조력자에게 상세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절대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이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동안 여러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동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상황이나 방문 장소에 따라 한 가지 정체성을 줄곧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유적지는 방문한 사람들의 다양한 동기와 계기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평준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미디어를 뛰어넘는 ‘해석’에 대한 정의와 폭을 넓혀야 한다. 카페의 좌석이나 장식, 메뉴와 같은 특징은 특정 장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게의 상품도 해당 유적의 스토리와 연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석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방문객으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적지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방식의 모든 측면에서 해석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whipic**

앞서 말한 것처럼 경험추구자는 기존 해석을 거의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방문한 장소를 관리하고 제시하는 방식은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관점이나 상징적인 물건, 뭔가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인기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는 수천 개의 소셜미디어의 게시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장소의 위치와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그들이 앉을 자리나 카페 등 창의적인 디자인이 눈에 띈다면 유적지가 품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스토리를 통해 잠재적인 기억 속에 간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충전자(Recharger)’로서,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일 수 있는 장소나 이와 관련한 스토리와 심미적, 정서적 혹은 영적인 연관성을 추구한다. 경험추구자가 해석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반면, 무감각하고 시의적절하지 못한 소통은 충전자의 기분을 망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감각을

참고문헌

Falk, John H. 2009. Identity and the museum visitor experience. Left Coast Press.

Ham, Sam. 2013. Interpretation – making a difference on purpose. Fulcrum Publishing.

아프리카 공동체의 재연결

Pascall Taruvinga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즈대학교 교수

아프리카 유산에 대한 해석은 아프리카 식민지 시대의 확립 체계와 제도, 전략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유산은 아프리카 문화와 자연, 그리고 사람 간의 열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는 곧 사람과 그들의 유산은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Taruvinga 2022a; Abungu 2016; Ndoro and Wijesuriya 2015).

유산은 다양성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의미와 관련성을 나타내는 유무형 형태를 띤다. 따라서 유산은 보편화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지역적이다(Taruvinga 2022a; 2022b). 아프리카의 공동체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의미하는 문화유산 및 관행과 단절되어 있었다(Abungu 2016; Ndoro and Wijesuriya 2015). 이는 식민지 이전의 아프리카 공동체가 문화 보존과 사회 경제적 생계를 위해 문화 자료를 큐레이팅하거나 해석하는 포용적이고 전체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아프리카 유산 해석은 그들의 유산 해석에 대한 현재의 열망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 못지않게 식민지 이전과 식민지 시대 동안 겪었던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유산의 생산, 해석 및 사회와의 관련성이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라면 조력자(문화유산 기관 및 전문가)의 역할을 포함하여 지식 생산의 근원 및 체계 또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전략적인 사고를 수용할 수 있다면, 유산에 대한 해석을 지식의 근원 및 체계와 관련한 기회 마련과 함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해석 전략 및 메커니즘을 배타적인 접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유산의 해석은 새롭고 무의미한 용어나 개념, 범례를 활용해 회피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넓고 포용적인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의 근원과 체



©shutterstock

계를 구축하고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유산 해석의 탈식민지화는 지역사회가 그들의 유산과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풍부한 지식 및 해석 기술을 생성하기 위한 지식 베이스와 기법을 수용해야 한다. 이것은 유산 보전과 함께 사회 경제적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방안도 된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 유산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바로, 국가 건설, 사회적 결속, 화해, 평화와 안보, 정체성 형성, 추모 열망 및 식민 트라우마와 분열된 과거 이후의 치유 촉진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 박물관과 세계유산, 기념관, 시민회관 등과 관련한 변화로 아프리카 공동체 유산의 현재를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아프리카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접근 방식에서 유산의 해석 효과와 영향을 측정하는 대중적인 척도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프리카 유산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행위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과학적, 공공적, 사회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아프리카 공동체를 위해 현재와 미래에 우리 유산을 함께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그들과 우리는 하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

화와 함께 아프리카 유산을 정의하는 것은 여러 직간접적 관계자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 없이는 쉽지 않다.

평등하고 공정한 유산 해석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공동체를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개념화부터 구현, 모니터링, 검토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참여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관행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 과정의 중심은 공동체에 대한 유산 시스템, 운영, 통치방식 및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 제안을 탈식민화하는 데 달려 있다. 또한 여기에는 디지털화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지역사회가 더 이상 소외되거나 상업화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그들의 유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반적인 수용 없이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외와 논쟁 역시 계속될 것이다. 유산의 법적 맥락은 아프리카 문화유산 해석에 대한 사회적 틀을 포함해야 하며 법적, 사회적 틀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야말로 아프리카 공동체와 그들의 유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회가 된다.

아프리카 지역사회는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식민지 시절 및 이후 법률 및 정책으로 인해 유산 관리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다 (Taruvunga 2022a; 2022b; Ndoro and Wijesuriya 2015). 식민지 이후 아프리카는 포괄성과 지역적 접근 방식 채택으로 유산 관리를 회피했다(Chirikure *et al.* 2015; 2008). 아프리카 유산 공간의 이론-실무, 현재의 토착 지식 체계 및 적용,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인 해석 체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등의 영역에서 탈식민화된 연구 및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것은 탈식민화, 포괄성, 다의성 및 대안 지식의 수용이다.

아프리카의 유산에 대한 해석은 더 이상 아프리카의 유산을 재구성하고 개념화하는 지적 활동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과 지역사회의 열망과 요구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고 연결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산 관리자는 아프리카 문화유산의 창조자(공동체)와 조력자(기관 및 전문가) 간의 연계성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여타 커뮤니티를 비롯한 지식, 생산시스템 및 여러 참가자를 통해 함께 창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

현재 학계와 전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식 생산을 지식 창조자, 조력자 및 대중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들과 함께 유산 해석을 위해 손잡을 수 있다면, 그만큼 아프리카 유산의 해석은 더욱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whipic**

참고문헌

- Abungu, Okello. 2016. Introduction. In Abungu Okello, Ndokuyakhe Ndlovu, Thiombiano Elise Ilboudo, Zulu John and Varissou Souayibou, eds. *Traditional Management Systems at Heritage Sites in Africa*. Midrand, South Africa: 8–10.
- Chirikure, Shadreck, Tawanda Mukwende, and Pascall Taruvunga. 2015. Post-colonial heritage conservation in Africa: Perspectives from drystone wall restorations at Khami World Heritage Site, Zimbabw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2(2): 165–178. <https://doi.org/10.1080/13527258.2015.1103300>.
- Chirikure, Shadreck, and Gilbert Pwiti. 2008. Community involvement in archaeology and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urrent Anthropology* 49(3): 467–485.
- Taruvunga, Pascall. 2022a. Stakeholder perspectives on World Heritage sites and development in Africa. Routledge, UK.
- Taruvunga, Pascall. 2022b. Betrayal of the pioneering spirit: Domesticating international commitmen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t World Heritage sites in Zimbabwe. ROSA, Harare (Zimbabwe). In print.
- Ndoro, Webber, and Gamini Wijesuriya. 2015. Heritag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From colonization to globalization. In Meskell, L. (ed.). Chapter 6. *Global Heritage: A Reader*. Oxford and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Ltd.

유산의 고유한 의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접근방법

Zaki Aslan

ICCROM-Sharjah 대표

아랍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유산 해석의 조건을 짧은 글로 대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아랍 국가 간에 조건, 역량, 재정적 능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유산에 대한 새로운 개입 사례와 최근 관행을 살펴보면, 유산의 고유한 의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접근법이 특정지역에서 최근 10여 년 사이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 수 있다.

새롭게 고안한 연구가 아랍 지역의 유산 제시와 교육, 인식, 관련 동향에 몇 가지 지표로 제공했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예로, '아랍국가의 제3차 정기보고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WHC 2021)'를 보면, "이 지역의 모든 아랍국가가 유산 인식제고 활동에 참여하지만 11개 국가만이 구체적인 전략을 시행 중이다. 그중 1개 국가는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됐다고 보고했으며, 나머지 10개 국가는 활동 사항에 대한 결격 사유가 일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 지역의 유산에서 비롯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인식제고와 효과적인 종합체계에 대한 적절한 국가전략은 없지만, 해석과 제안 사업은 임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일반 대중과 민간부문, 청소년 및 토착민은 유산과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관광업과 의사결정자, 공무원, 학계 및 세계유산 주변 지역사회는 일반적인 이해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계획과 사례는, 단일 기관이나 일부 문화적 후원자인 개인의 주도와 부적절한 유산 해석과 교육정책, 전략이 있었음을 덧붙였다.

세계유산은 이 지역에서 유산 자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랍국가들이(등재 절차부터 유산 주변의 사업개발 시 유산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인식까지 아우르는) 세계유산 작업에 점차 더 많이 참여 중이다. 일부 정부기관은 점차 유산 해석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여 년 사이, 칼라트 알바레인과 펠링루트(사진1&2), 모로코의 볼루빌리스(사진3), 레바논의 비블로스(사진4) 등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장소에 여러 유산 박물관과 센터가 등장했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미르국에 있는 움레이하 선사유적지(사진5), 그리고 요르단의 제라시와 마다바와 같이, 아직 세계유산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잠정 리스트에 오른 고무적인 사례도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중과 다양한 방문객, 특히 비전문가 누구나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유산에 대해 더욱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인식 역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문가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접근법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의 고고학 장소와 유적, 그중에서도 특히 흙으로 만든 건축물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고고학 장소마다 각기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있고 종종 조사 작업에 사용된 방법과 여러 관련 전문 배경지식의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대중 및 정치적 인식과 참여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산 해석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고고학 장소와 유적을 당장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샤르자에 위치한 폐허가 된 알 다이드 요새 유적지(사진6)는 사회 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래 위치에 증거를 토대로 재건과 증축 계획의 접근법을 제안했지만 요새를 원형대로 재건하



기를 추진한 지역사회의 압박이 최종적으로 실행돼 정치적 지지를 받은 접근법을 일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유산인 아드 디리야(사진 7)에서는 유적지와 관련해 새로 창설된 관계 부서가 유산의 건축요소 재건이나 해석 방식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장 관광안내센터와 설명은 적절한 간판과 유적지 모형과 더불어 외국 방문객이 일정상 또는 편의상 방문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안내센터와 현장 박물관에서

1. 칼라트 알바레인 박물관
2. 진주를 상징하는 가로등이 장식된 펄링루트, 바레인
3. 볼루빌리스 박물관, 모로코
4. 비블로스 요새 박물관과 지도, 레바논
5. 움레이야 선사유적지 공원, 샤르자 미르
6. 알 다이드 요새, 샤르자, 재건축 전과 후
7. 아드 디리야, 사우디아라비아
8. 알 자지랏 알함라, 라스알카이마, 아랍에미리트

사용가능한 증강/가상현실 미디어 등의 기술 솔루션을 갖춘 인터랙티브 외부 디스플레이가 또 다른 접근법으로 포함됐다. 이 기술 솔루션 중 일부는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의 알 자지랏 알함라 유적지를 해석하기 위해 샤르자 아메리카 대학이 실시한 학술기관의 연구와 관련 있다(사진8).

결론적으로 아랍 세계의 유산 해석 분야, 특히 폐허가 됐거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유산 해석 분야는 고고학자부터 보존 전문가, 건축가 및 설계자, 교육자를 아우르는 유산 전문가 간에 다양한 교류와 이해, 접근법이 필요하다. 특히 유산 전문가가는 유산 해석에 대한 모든 조항에 채택될 해석 및 보존 원칙의 진정성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해석 사업은 유산 인근 주민, 정책 입안자, 미디어 전문가 및 방문객 모두를 위한 유산 교육과 인식, 홍보와 관련한 국가의 전략적 기틀 중 하나가 돼야 한다. 유적지를 담당하는 센터나 박물관은 방문객의 설문조사와 평가 등을 통해 해석 사업 및 미디어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whipic**



참고문헌

- JICA. 2014. Preparatory Survey of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etra Museum in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Final Report. Petra Development and Tourism Region Authority. <https://openjicareport.jica.go.jp/pdf/12287264.pdf> (accessed 30 November 2022).
- Stanley-Price, Nicholas. 2009. Reconstruction of Ruins: Principles and Practices. In Richmond, Alison and Braker, Alison, eds. *Conservation: Principles, Dilemmas, and Uncomfortable Truths*.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080941714> (accessed 30 November 2022).
- World Heritage Committee. 2021. Extended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ttps://whc.unesco.org/en/sessions/44com/documents> (accessed 30 November 2022).
- World Heritage Committee. 2021.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Third Cycle of the Periodic Reporting Exercise in Arab States. <https://whc.unesco.org/document/187991> (accessed 30 November 2022).

근대갈등을 넘어선 불편유산, 함께 듣는 공유의 목소리

Shu-Mei Huang
대만국립대학교 교수

과거는 인류가 살아온 흔적과 함께 더 넓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남기고, 유산은 우리가 현대사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됐다. 그러나 유산이라 하더라도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일화와 관련한 유산, 즉 '불편유산(Difficult Heritage)'(MacDonald 2009) 유형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다양하고 때때로 갈등을 빚는 과거의 이해가 서로 경쟁과 중재를 반복한다.

지난 20여 년 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불편유산, 즉 식민주의나 전쟁터, 수용소, 강제노동 착취 현장 등과 관련한 건축이나 기반 시설과 같은 유산을 어떠한 과정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아시아의 제국들은 각각의 수도와 항구 도시를 구성하는 웅장한 건축물과 기반 시설이 특징이지만, 식민지 시대의 유적지에서 살았던 하위 지역사회 사람들은 자궁심, 향수, 고통, 두려

타이베이 화렌 철도



움, 수치심이 한데 뒤섞인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일례로, 대만의 동쪽 해안에서는 화롄에서 타이둥까지 이어지는 계곡을 관통하는 철도가 1909년부터 1926년까지 건설되었다. 일본에서 대만으로의 집단 이주 계획의 결과로 이곳 철도와 역, 철도 주변 마을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의 발전 및 성과를 나타내는 잔재들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철도를 이용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풍경은 사실 식민 통치자들이 당도하기 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토착민 지역사회를 밀어내면서 조성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토착민들은 철도 건설을 위한 철로 포장 작업에 동원되어 착취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중에는 이 철도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즐거움이 아닌 고통스러운 기억에 휩싸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유산의 탈식민화(Decolonisation of Heritage)’ 캠페인을 낫설게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식민주의의 정의는 대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논쟁의 대상이다. 지역 내 식민주의는 본질적으로 서구적이기보다 국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Huang, Vickers, and Lee 2022).

여기서 식민주의는 분명 과거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 주도권과 얽혀 있다. 게다가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뚜렷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산의 해석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Huang, Lee 및 Vickers(2022)는 불편유산을 ‘지역의 경계(Frontiers of Memory)’로 구상하면서 유산이 그러한 경계의 시간적 차원을 확장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명한다.

아시아의 불편유산에 대한 사례 연구가 늘면서 기억과 유산 사이의 역학은 물론, 유산을 둘러싼 지속적인 협상 과정에서 유산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방

치되거나 잊혀진 기억은 과거의 경계 너머로 사라질 수 있는 반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궈낸 기억은 ‘공동체 의식을 위한 새로운 중심점을 형성하거나 심지어 국가 간 시간 영역(Zonal Time-Space)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자극할 수도 있다’(Huang, Vickers and Lee 2022).

과거의 불편한 사건과 관련한 유산을 해석할 때 책임감 있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경쟁심은 물론 더 나아가서 분노의 감정만을 자극하는 보수적이면서도 안으로만 치우친 편협한 의식보다는 평화와 화해의 초국가적 담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이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사례가 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불편한 과거의 초국가적 요소에 대한 국가 간 대화와 비판적 성찰을 촉진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단 한 명 가해자라도 다시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불편유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과거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호주, 뉴질랜드 및 대만의 정착민들과 원주민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성찰해 왔다.

우리는 유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능동적인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Mitter(2020)가 지적한 것처럼, 유산 부문이 그러한 과업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교육, 미디어 및 국제 관계 모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부족한 ‘통합된 자유주의적 담론(Unified Liberal Discourse)’을 육성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한다. 현대 분쟁과 관련한 불편유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국가적 희생과 불만을 다시금 자극하는 신식민주의 감정이 아닌,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통합된 초월적 목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whipic**

참고문헌

- Huang, Shu-Mei, Edward Vickers, and Hyun-Kyung Lee. 2022. Introduction. In Huang Shu-Mei, Lee Hyun-Kyung, and Vickers Edward, eds. *Frontiers of Memory in the Asia-Pacific: Difficult Heritage and the Transnational Politics of Postcolonial Nationalism*.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Macdonald, Sharon. 2009. *Difficult Heritage: Negotiating the Nazi Past in Nuremberg and Beyond*. Oxon and New York: Routledge.
- Mitter, Rana. 2020. *China's Good War: How World War Two Is Shaping a New Nationalis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04. 라틴,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 유산 해석의 발현

Jon Kohl

PUP 글로벌유산컨소시엄 대표, 코스타리카 대학교 겸임교수

라틴 아메리카의 유산 해석 분야는 많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북아메리카의 문헌 자료와 전문가의 유입을 토대로 성장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산 해석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미국 정부 개발 기관인 미국 평화 봉사단(US Peace Corps)이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1978년에 최초로 지정된 세계유산 중 하나)에서 최초로 해석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1960년대로 볼 수 있다. 이후 주로 미국인들이 저술한 책들이 유입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산 해석의 싹이 트기는 했으나 이는 분명 북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1980~1990년대에 걸쳐 멕시코,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그리고 바다 건너 스페인에서도 유산 해석에 관한 서적이 출판됐고, 1992년 칠레에서는 Jorge Morales와 UN이 최초로 유산 해석에 관한 라틴 아메리카 서적을 발표했다. 같은 해 Sam Ham이 스페인어로 집필한 매우 영향력 있는 저서 환경적 해석(Environmental Interpretation)을 출간했다. 그러나 대부분 알려지지 않다가 2000년대에 이 서적들이 재해석되면서 어느 정도 분야가 통합되기 시작했다. 그 외에 1991년에는 코스타리카 대학교에서 환경 해석에 관한 최초의 대학 학위 과정도 개설됐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2017년에 *Compartiendo el Tesoro: Metodología para Divulgar la Arqueología* (Sharing the Treasure: A Methodology for Interpreting Archeology, Dr. Antonieta Jiménez of Mexico 저)의 발표를 필두로, 2018년에는 Manuel Gándara와 Antonieta Jiménez가 편집한 *Interpretación del Patrimonio Cultural: Pasos hacia una divulgación*



2021년 라틴 아메리카인이 제작한, 라틴 아메리카인을 위한 최초의 유산 해석 관련 대학 교재의 표지.



PUP-NAI 스페인어 해석 웨비나 시리즈 로고



2018년 제1회 라틴 아메리카 유산 해석 대회 포스터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린 회의는 라틴 아메리카 해석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의 발판이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현장의 리더이자 오랜 중남미 베테랑 중 한 명인 Sam Ham 박사(맨 왼쪽)가 참석했다.



significativa en México(*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Steps toward meaning interpretation in Mexico*)가 발표되면서 현지 자료와 출판물 수가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 서적 출판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 해석가 사이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특히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전문가들을 한데 묶은 2017년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린 아메리카 기반 국립해석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국제 컨퍼런스가 계기였다. 그들의 만남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산 해석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로스 카보스 컨퍼런스에서 비롯된 첫 번째 활동은 해석 및 관련 분야의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들이 라틴 아메리카와 스페인 전역의 사람들에게 유료로 인터랙티브 기회를 제공하는 스페인어 해석 웨비나 시리즈의 출범이었다. 그 목표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해석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 직후인 2018년 10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의 대학, 비영리조직,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의 해석가들이 제1회 라틴 아메리카 유산 해석 회의(I Latin American Congress for Heritage Interpretation)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5개국의 캠퍼스에서 개최됐고 50명 이상의 발표자가 참여했으며 인터넷으로 20개국의 1,800명에게 전송되었다. 멕시코의 사회과학대학원이자 공동기획기관인 Colegio de Michoacán은 2023년 초에 심사를 거쳐 회의의 논문 편집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최초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 전역의 사람들을 연결했고 유산 해석이라는 신생 분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여기에 힘 입어 2020년 아르헨티나에서는 멕시코 유산 해석 협회(Mexican Association for Heritage Interpreters)가 설립되었고 이후 *Méropé: The Magazine of the Center for Tourism, Recreation, and Heritage Interpretation Studies*이 등장했다. 같은 해 콜롬비아 국립 공원 관리국(Colombian National Parks Service)은 국립 외부 교육 NGO인 OpEPA의 지원을 받아 참여형 해석 프레임워크 방법론을 시스템 전반에 확산시켰다. 그 이듬해, 코스타리카에서는 원격교육대학 출판사(University of Distance Learning Press)가 라틴 아메리카인들을 위해 제작한 유산 해석에 관한 최초의 교재 *Esencia de la Interpretación del Patrimonio: Visión holística para experimentar y conservar el patrimonio natural y cultural de América Latina*(*Essence of Heritage Interpretation: Holistic Vision to Experience and Conserve th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of Latin America*)를 출간했다.

2018년 개최했던 회의의 양코르 격으로 2021년 회의 주최 측은 코스타리카 대학교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22년 코스타리카에서 시작된 라틴 아메리카 유산 해석 평가를 계획했다. 추후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이 방법론을 조정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회의 서적 외에도 멕시코 협회(Mexican Association), PUP 세계유산 컨소시엄(PUP Global Heritage Consortium) 및 북아메리카 해석 협회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세계 전역의 라틴 아메리카 해석가들을 위해 공동 집필한 *Guía de campo para escritores de temas interpretativos*(*Interpretive Theme Writer's Field Guide*)를 출간할 예정이다. **whipic**

꽃과 수프

Valya Stergioti

교육기획자, 유럽해석협회

2022년 10월 14일,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젊은 여성 두 명이 입장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명작으로 손꼽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에 토마토 수프를 뿌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은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저지른 행동”이라며 “우리는 이 그림이 보호용 유리로 덮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토마토 수프를 뿌려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들은 “요즘 사람은 기후 위기보다 예술에 더 관심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구가 기후 위기나 자원 고갈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어진다면 예술은 물론 인간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행태가 비이성적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재차 자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저자는 이 에피소드에 주목했다. 해석 훈련가이자 기획자로서 그들이 갤러리에서 일으킨 행동과 의도, 그리고 유산 해석의 여러 원칙을 비교했다.

분명, 이 이야기를 단순히 ‘흑백논리’에 적용한다면, 해석의 목적에 맞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술을 대중의 영감이나 예술적 자극의 원천으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유산의 관리에 집중해야 할 대중의 관심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쟁 요소로 간주하는 것일까?

사건 이후, 그 환경운동가들을 향해 “무지한 사람”이라며 지탄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해하는 행위가 과연 환경보호에 얼마나 도움 될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다. 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중 충격요법이라며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다.

여기에서 환경과 유산 해석의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 해석가 역시 환경운동가처럼 사람들의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유산 관리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들은 문화유산이야말로 큰 그림의 일부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앞서 언급한 반 고흐 작품에 토마토를 뿌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해바라기처럼 단순하고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가치(아름다움 등)를 찾을 수

환경단체 Just Top 의 활동가들이 영국 내셔널갤러리에 전시된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해바라기’에 토마토수프를 끼얹었다.



©Just Stop Oil SNS



반 고흐가 살았던 도시, 아를, 프랑스

있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겸손, 평등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다. 또 하나, 해바라기가 피었다 지는 자연스러움을 묘사하는 데 주목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사람과 탄생,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

폴 고갱이 친구인 반 고흐를 만나러 프랑스의 도시, 아를에 도착했을 때, 반 고흐는 해바라기 연작을 그린 후 고갱의 방에 이 그림을 걸어 두 사람의 우정을 표현했다는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존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다.

이 작품을 아름다움과 평등, 웰빙, 창의력, 우정과 같은 인간 내면의 가치나 삶, 죽음, 시간, 겸손, 심지어 자연과 같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관련해 소개한다면, 방문객은 마음을 열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스스로의 의미를 가장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 개인적인 연

결고리를 형성함으로써 그들은 그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씩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유산 해석 덕분에 사람들은 내셔널 갤러리를 둘러본 후 예술가로서 반 고흐의 작품에 감탄은 물론, 그 작품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는 공동의 책임감도 갖게 될 것이다.

때때로 해석가는 개방형 질문과 같은 해석적 도구를 이용해 참가자들 사이에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들은 반 고흐가 살았던 당시와 현시대를 비교해, 오늘날 아를과 그 주변 지역의 어떤 매력이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게 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자연이 예전처럼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자연적 요소는 무엇인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자연을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그곳에 여전히 꽃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보존을 위해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독백보다 함께 토론하고, 하나의 교훈을 전달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이 능동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 그들에게 행동을 강요하고 선을 강조하는 대신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머지않아 반 고흐의 명작 ‘해바라기’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깨닫는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한 관심을 촉발하는 데 더 이상 토마토 수프가 필요치 않은 날이 오지 않을까. **whipic**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imagetoday

고고학과 문화유산 해석 설명의 동향

John H. Jameson

ICOMOS ICIP, 전 미국국립공원관리청 소속

최근 고고학과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적 해석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원의 보존 및 보호와 관련된 관리 방안에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자원보호법과 문화자원관리(Cultural Resource Management, CRM) 전략이 수립되면서 고고학 및 유적지 정보와 유물 수집이 급격하게 늘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와 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유산 가치에 대한 포용성과 민감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북미의 수많은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다문화주의 개념을 비롯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실용적인

고 윤리적인 인식의 일환으로서 유산 연구의 현대적 맥락을 다뤘다. 미국의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88년 캐나다에서는 문화의 다양성, 즉 다문화주의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캐나다 다문화주의법(Loi sur le Multiculturalisme Canadien)이 통과되었다.

1990년대에는 전문가 사회가 지적 내향성(Intellectual Introversion)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대신, 대중적 설명과 프로그램 및 표준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고고학의 대중성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입했다. 또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고학자들과 문화유산 관련 분야 학자들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설명 및 해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1990년대까지 대중적 설명과 해석 전략 및 표준을 다루는 간행물은 드물었고, 각기 별도의 설명과 학술적 회색 문헌(Gray Literature: 입수하기 어려운 문헌)을 통해서만 모호하게 다룰 뿐이었다.

2005년에 이르러서는 유산, 역사적, 고고학적, 과학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와 정의가 심미적, 예술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성찰과 숙고에서 비롯된 다른 가치들과 같은 무형의 자산과 통합됐다.

‘고고학 지식’의 내용이 확장 및 확대되면서 이 용어는 문화유산이라는 범주를 넘어 더욱 전문적인 실무에 포함되어 더 넓

고고학 발굴현장의 모습

©shutterstock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내부

©shutterstock

고 권위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전문가의 정의와 의미를 더욱 확장시켰다. 그로 인해 도출한 중요한 결과는 고고학 및 문화유산 해석에 있어서 해석적 서술 접근법의 출현으로 유산 전문가들이 단순히 파생된 정보 집합을 단순히 제기하는 것만이 아닌,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서술적 해석 과정에서 문화유산 가치를 이해 및 소통하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유산 관리 심의에서 중요성의 정의와 궁극적인 분류, 보존, 유지 및 해석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역할과 역사 보존 및 교육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가치 역시 변화의 흐름을 맞이했다. 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그 연구에 대한 대중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유산 관리자, 고고학자, 문화역사가 및 기타 자원 관리자는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능력에 대해 배워야 한다.

전문 교육자와 해석가에게 중요한 것을 꼽자면, 무엇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현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정의하는 유형

적이고 무형적인 문화유산 가치와 연결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다. 그들은 지속가능한 환경과 유산의 가치를 불가분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더욱 전체론적인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용적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하는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잘 알고 있다. 문화유산은 더 이상 위대한 상징적 기념물과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눈에 띄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던 사회의 수많은 장소들을 포함한다.

충분히 기록되지 않은 유산들은 평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육성하고 공동체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각 문화를 독특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부각시킬 수 있다. 그것은 고대의 전통을 정기적으로 개봉하는 극장의 역할을 겸할 수도 있다. 과거에 무시됐고, 지금까지도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낮은 유산이 지닌 가치가 물질적인 구조나 주변 지리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오늘날에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방문객 및 일반 대중에게 이 유산이 지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서술적 스토리가 필요한데, 이는 대중적인 해석과 설명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뤄질 수 있다. **whipic**

유네스코 WHIPIC 전문가 좌담회: 보존과 개발의 간극을 잇는 유산 해석설명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사회 참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및 다국적 합작 등을 통해 보존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용하고 세계유산의 조화로운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세계유산 관련 기구에서 활동하는 4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각 분야별 유산의 역할, 보존과 개발 간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가자의 발언은 요약 및 편집을 거쳐 수록되었습니다.



Gamini Wijesuriya
ICCROM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Jakhongir Khaydarov
UNDP 키프로스 국장



Mario Santana Quintero
ICOMOS 사무총장, 칼턴대학교 교수



Tim Badman
IUCN 문화 및 청소년 유산 책임자

각 기관과 유산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Gamini Wijesuriya, ICCROM

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관 중 하나인 ICCROM(국제문화재 보존복구연구센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ICCROM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1956년, 유네스코가 전 세계 문화재 보존을 장려할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13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 기구로 교육, 정보, 연구, 지지 및 협력을 통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키프로스의 공유유산, 파마구스타 도시 성벽

Jakhongir Khaydarov, UNDP

키프로스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와 함께 섬에 거주해 온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와 문명에서 발전했습니다. 키프로스 섬은 1974년 이후 사실상 키프로스 공화국과 키프로스섬 북부 당국 두 국가로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공동체인 키프로스 공화국만 유럽연합(EU)의 회원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은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했으며 키프로스의 UNDP(유엔개발계획)는 유럽연합의 자금을 지원받아, 섬의 평화와 신

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문화유산은 두 공동체인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공동체와 터키계 키프로스인 공동체 사이의 평화와 신뢰를 증진하는 수단이자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UNDP와 유럽위원회는 소위 문화유산기술위원회를 통해 이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으로 두 공동체는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Mario Santana Quintero, ICOMOS

비영리 국제기구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유네스코와 회원국들의 수많은 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ICOMOS는 지난 50년간 세계유산협약 이행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제적인 과제에 대한 성찰과 보존을 통해 의미있는 문화부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용, 형평성, 다양성을 주장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도시 개발과 환경 발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유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통해 개발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im Badman, IUCN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은 자연보호에 주력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계획할 때 자연은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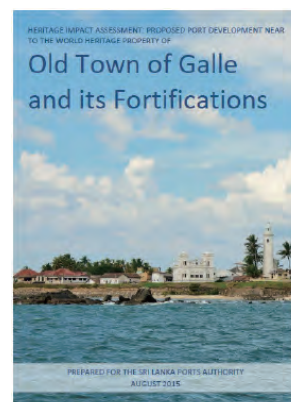
IUCN은 ICOMOS와 ICCROM을 보완하는 자문기구로서의 핵심 업무와 함께 자연유산의 식별, 보호 및 보존을 확보하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유산과 협약, 특히 세계유산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이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장소 기반의 접근법을 발전시키는 매개체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산은 지구상의 독특하고 다양한 모든 장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다양성과 자연, 서식지, 종(種)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마저 수용해 이를 한데 모으는 완전한 이야기, 혹은 이야기를 잇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존과 개발 사이 간극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유산의 해석설명을 통해 포괄적인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Gamini Wijesuriya, ICCROM

20년 전에는 개발은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유산의 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반대로 개발 부문은 유산이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존과 개발 사이에 격차가 생겨났습니다.

ICCROM, IUCN, 그리고 ICOMOS는 유산을 위협하는 목록을 수집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개발이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또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ICCROM은 유산 보존 및 관리에 있어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유산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확신과 함께, 사람들에게 유산에 대한 담론의 장을 열어줍니다.



갈 옛 시가지와 요새에 대한 유산영향평가 보고서 (스리랑카항만공사)



유산영향평가를 통해 개발한 갈 옛 시가지와 요새

©Shutterstock

이제 개발이라는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은 우리의 유산관리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평가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것은 보존과 개발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ICCROM은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은 1990년대 후반에 도입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 ICCROM 사무총장은 문화유산 관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장소에 한정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장소에 대한 특정한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는 것이 해석이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리랑카의 세계유산(갈 옛 시가지와 요새) 부지 전반에 정부가 대규모 항구 개발을 제안했고 유네스코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산영향평가에 따르면 이 개발 제안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한다면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특정 유적지를 해석할 수 있다면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산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개발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해석은 특정 유적지의 개발로 인한 이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유산영향평가와 같은 평가 과정에 처음부터 개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 수 있다면 해석은 개발자와 대중 사이의 신뢰를 높이고, 보존과 개발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Jakhongir Khaydarov, UNDP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은 경제 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은 키프로스의 화해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간극은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과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이 공유하는 일상이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키프로스의 분쟁 후 상황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과 보존과 개발 사이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화 간 대화는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사회 내부와 지역 간의 화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외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 사이의 포괄적인 협력은 UNDP 키프로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리스계 및 터키계 키프로스 지도부가 양·공동체적 문화유산기술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산에 대해 토론하고 해석하는 기술위원회는 개발을 문화유산 보존에 초점을 맞춰 연결하기에 훌륭한 포럼이 되었으나 법적인 실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UNDP는 자연스러운 플랫폼으로 개입했습니다. UNDP는 시행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계약자를 고용했으며,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UNDP의 더욱 넓은 권한으로 성별에 따른 장애요소를 깨고 청소년의 참여를 장려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의사 결정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도나 기타 지역 본부와 같은 중앙집권화된 곳에 거주하는 반면 수혜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지방이나 문화유산 근처에 거주합니다. UNDP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실었습니다.

유산은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체 간의 화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 간 대화입니다. 이는 EU의 외교 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UNDP가 패널로 참석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포럼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결해야 하고 배워야 할 많은 협력 채널을 알게 되었으며 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요점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행동은 사후 대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기술적인 도구를 지니고 있는 만큼, 예방 작업, 예측, 분석 등을 현재 우리가 수행하는 연구 및 협력에 더불어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거쳐 그리스계 키프로스인과 터키계 키프로스인이 만난 오론타 모스크, 키프로스

Mario Santana Quintero, ICOMOS

ICOMOS는 최근 유네스코를 위해 ICCROM 및 IUCN과 함께 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개발의 필요성과 훌륭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행 사이의 격차 해소와 평가 수행을 위한 방법과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최근 몇 년간 도시화, 관광, 인프라, 댐, 도로, 발전소, 기타 주요 개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개발로 인한 수많은 압력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협약의 자문기관과 함께 실시한 모니터링 보고서(Monitoring Reports)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유산영향평가가 장기적으로 보존 및 개발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는 데 실제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간극은 포괄적인 유산목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사적 장소의 존재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도시, 지역 및 국가 수준의 당국에서 이러한 유형의 목록을 시급히 만드는



로어 올드 타운, 퀘벡, 캐나다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흥 경제국과 저소득 국가에서는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과 봉쇄를 야기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세계유산에 대한 접근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한되었으며 관광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생계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 개발은, 유산의 위치, 분포 및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 공간적 현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Frank Matero는 유산 현장의 해석을 전시할 때 세 가지 특별한 기준에 대한 성찰과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소, 특히 파괴되고 흡수되고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장소를 어떻게 경험해야 할 것인가? 2) 개입이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어떻게 하면 전시가 시공간을 넘어 과거에 대한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

저는 보존과 개발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석설명 전략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행가이드와 함께 세계유산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진화도 그 이면이 있습니다. 정보의 품질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는 관광업을 주로 하는 현장과 지역사회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의 경험은 세계유산의 중요성과 완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유산 전문가 집단이 연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수집되고 제공되는 방법과 가상화된 표현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방문객의 세계유산에 대한 경험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통합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좋은 사례를 남기기 위해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해석 및 설명 전략을 종합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기술을 정의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계를 설득하여 전반적인 유산 현장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특별 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산기관 간의 협업은 세계유산이 더욱 포용적이고 평등하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의 접근법을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im Badman, IUCN

유산 보존과 개발의 간극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먼저, 개발 안건이 종종 보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계유산에서 지속불가능한 개발이 지속가능한 개발로 불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용인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는 본질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개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립, 혹은 갈등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산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다양한 주도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측하고 대안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참여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가치만 고려하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계유산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외의 또 다른 유산적 가치가 존재합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만을 바라보는 것은 공동체, 공동체의 열망 및 이들의 연결관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산이 자체 경계에 의한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유산관리자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영향력과 관리자의 책임이 유산의 제한된 부동산적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개발은 유적지를 포함하여 더욱 넓은 경관, 더욱 넓은 장소, 더욱 광활한 바다 경치, 더욱 큰 도시 환경을 대상으로 합니다. 때문에 보존과 개발 사이에 필요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비룡가 국립공원의 산악 고릴라, 콩고

©AdobeStock



갈라파고스 제도, 에라도르

©shutterstock

저는 유산 해석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격차'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여러 적극적인 방법으로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에 대한 훌륭한 해석은 실질적인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청중과 다양한 공동체가 장소에 대하여 갖는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활동으로 해석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장소에서 유산을 주제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유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까? 이는 유산의 서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을 우리 임무에 함께 참여시키고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유산 관리자의 기술이 부족할 때, 유산을 보존하는 일은 종종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또는 유산관리자)는 그 유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역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여하는 대신, 조언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석은 장소 기반의 접근법이며 우리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 간 간극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유산과 지역공동체를 존중하는 개발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유용한 개발을 선택하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이밖에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해석이 직접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 가치의 기회를 창출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과 유산 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은 그 장소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때로는 관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 유적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주변을 더욱 살기 좋게 하며, 새로운 사업을 꿈꾸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해석 서비스 자체가 수익과 수입 창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했듯, 해석이 모든 이슈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기반시설과 교육기술 부족문제, 인구 문제, 오염 및 환경의 질과 권리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석이 중요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세계유산 체계에서 간과되어 왔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더욱 의미 있습니다. WHIPIC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필요했던 일이며,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whipic**

조화로운 유산 해석

포용적 계획이 사회를 연계한다
- 잔지바르 석조도시 사례 -

Muhammad Juma
세계유산센터 아프리카 지부장



©shutterstock

잔지바르 석조도시의 전경

2000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잔지바르의 석조도시는 사회를 연결하고 공간 및 문화 개발을 위한 소통이 가능한 균형적인 공간 계획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서 유산의 가치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및 설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이는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개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환으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190만 명의 인구(GoZ 2022)와 2,654km²의 면적을 보유한 잔지바르 제도는 변화된 도시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도시 개발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했다(UN-Habitat 2014).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문화를 위한 국가공간개발전략(National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NSDS)이 마련되었다(GoZ 2015a). 이와 함께 역사도시경관(Historical Urban Landscape, HUL)을 이용하는 과정으로서 유산 가치의 해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UNESCO 2012, 2015).

이러한 과정이 화해적 해석과 상반되는 아이디어와 입장을 조율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잔지바르 타운에서 공간과 문화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려 한다.

잔지바르의 유산 해석과 도시 보존

잔지바르 제도는 1927년에 고대 기념물 보호 관련 법률을 처음 제정했지만(GoZ 1927), 도시 보존 과정은 1980년대에 라무(케냐의 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Ghaidan 1976, Heathcott 2013). 그 결과, 1985년에 석조도시 보존 및 개발청(Stone Tow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STCDA)이 설립되었고 1996년에는 도시 보존 계획이 수립되었다(Siravo 1996).

도시 보존 계획을 통해 석조도시를 석조 건설 지역과 진흙 건설 지역으로 구분하는 유산 가치에 대한 편향된 해석이 등장했다. 실제로 사회가 단순히 빈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간주했던 것(Myers 1995)을 유산 가치로 전환한 것이었다.

또한 2000년에 잔지바르의 석조도시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이러한 해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지도 1)에 포함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 이 아이디어로 석조都市는 대도시 면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영역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과 함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사회를 어떻게 참여시킬지 하는 부분이 주요 쟁점이었다.



지도 1.

편향된 해석과 공간 계획의 결과

잔지바르의 석조도시는 동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는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발전 양상을 보인다. 잔지바르는 오만의 술탄이 19세기에 그의 궁정을 무스카트에서 옮기면서 급격히 발전했고(Freeman-Greenville 1988), 영국과

인도 무역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점차 영향력을 키워 나갔다(Sheriff 1995). 1964년에 일어난 잔지바르 혁명은 석조 도시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잔지바르타운의 중심은 응암보(N'gambo)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Sheriff 2010).

1968년 잔지바르타운의 세 번째 기본 계획에서 이러한 이동을 인정했다. 이는 1982년 네 번째 기본 계획(GoZ 1982)에서 석조도시와 응암보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계획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응암보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1985년에 20만 8,571명이었던 인구가 2015년에는 61만 1,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러한 성장세로 인해 고밀도화(Densification)와 도시 개발의 압박은 심해졌다. 결국 응암보는 1996년 보존 계획에서 유산 가치가 없다고 제안되었고, 석조도시가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주변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잔지바르타운이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산 가치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했다.

역사도시경관(HUL) 접근 방식 내에서의 새로운 해석

2009년 잔지바르에서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HUL) 접근 방식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도시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역사적 도시 연속성을 위협하는 현행 도시 보존 관행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Choay 1999). 그들은 도시의 연속성을 지지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HUL 및 권장사항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잔지바르 정부(GoZ)는 다섯 번째 기본 계획인 잔지바르의 구조적 계획(Zanzibar Structural Plan, Zans-Plan 2015b)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착수했다. 그와 동시에 문화를 도시 개발의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공간개발전략이 개발되었다. 그



잔지바르 석조도시의 해안



주민회의를 통해 HUL 접근 방식과 새로운 해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1.

과정에서 응암보(완충지대)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다르게 해석했다. 그것은 유산 자체는 물론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계획 도구’로도 여겨졌다. 이와 같이 응암보는 석조도시와는 다른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됐다.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은 응암보는 유산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석조도시의 주변 지역에서 특정한 가치가 있는 지역(완충 지대)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화해적 해석을 이끌어낸 과정에는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여기에는 생활 환경에 대한 다원적 의미와 인간적 가치와 관련한 기반 접근법이 포함됐다(Bandarin and Van Oers 2015). 이 과정은 집중적인 연구와 응암보의 유형 및 무형 가치 모두에 대한 다양한 인벤토리를 도식화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 2월과 2015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비전 워크숍과 함께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제별 워크숍이 기획되었다. 모두 주민과 회의를 열어 HUL 접근 방식과 새로운 해석에 대해 설명했다(사진 1). 이를 위해서는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와 미래를 연결하고 포괄적인 공간적,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유산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훌륭한 통치 구조

지원과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유산 가치 해석 포럼 형성, 그리고 모범 사례와 학습한 교훈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과 국제 간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조화로운 유산 해석으로의 접근

잔지바르의 석조도시는 유산 가치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공간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소외시키고 저해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HUL 접근 방식은 화해적 해석으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했으며 완충 지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지방 당국들이 석조도시를 더욱 넓은 영토와 연결함으로써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실, 건물 유형을 토대로 한 고전적인 유산 관리에 대한 보존 접근 방식은 잔지바르 타운에서 완충 지대와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합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whipic**

참고문헌

- Bandarin, Francesco, and Ron Van Oers. 2015.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Managing Heritage in an Urban Century*. Chichester, UK: Wiley-Blackwell.
- Choay, Françoise. 1999. *L'allégorie du patrimoine*. Paris: Seuil.
- Freeman-Greenville, Greville Stewart Parker. 1988. *The Swahili Coast, 2nd to 19th Centuries: Islam, Christianity and Commerce in Eastern Africa*. Oxford: Variorum Collected Studies.
- Ghaidan, Usam. 1976. *Lamu: A Study in Conservation*. Nairobi: The East African Literature Bureau.
- Government of Zanzibar. 1982. *Zanzibar Master Plan, 1982*. Zanzibar.
- Government of Zanzibar. 2015a. *National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Zanzibar.
- Government of Zanzibar. 2015b. *Zanzibar Master Plan*. Zanzibar.
- Heathcott, Joseph. 2013. Historic Urban Landscape, The Swahili Coast: New framework for Conservation, in Ron Van Oers and Sachiko Haraguchi, eds. *Swahili Historic Urban Landscape. Report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and Field Activities on the Swahili Coast in East Africa*. Paris: UNESCO. pp. 20-39.
- Myers, Garth Andrew. 1995. *The Early History of the Other Side of Zanzibar Town, in Abdul Sheriff. The History and Conservation of Zanzibar Stone Town*. London: Eastern Africa Studies; pp. 30-45.
- Sheriff, Abdul. ed. 1995. *The History and Conservation of Zanzibar Stone Town*. London: Eastern Africa Studies.
- Sheriff, Abdul. 2010. *Dhow Cultures of the Indian Ocean: Cosmopolitan, Commerce and Islam*. London: C. Hurst & Co.
- Siravo, Francesco. 1996. *Zanzibar: A Plan for the Historic Stone Town*. Geneva: The Aga Khan Trust for Culture.
- UNESCO. 2012.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Available at: <http://whc.unesco.org/en/hul/> (accessed 30 November 2022).
- UNESCO. 2015. *Policy Document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vailable at: <http://whc.unesco.org/en/sustainabledevelopment/> (accessed 30 November 2022).
- UN-Habitat. 2014. *World Urbanisation Prospects*. Available at: <https://esa.un.org/unpd/wup/publications/files/wup2014-highlights.pdf> (accessed 30 November 2022).



누비아 유적 - 아부 심벨에서 필레까지 이집트

©shutterstock

나의 세계유산

누비아 유적- 아부 심벨에서 필레까지

Heba Alders

이집트 관광유물부, 고고학 조사관

아스완주 남부의 아부 심벨에서 필레에 이르는 웅장한 누비아 유적은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여기에는 아부 심벨에 있는 람세스 2세의 신전, 아마다 신전, 우아디에스세부아 신전, 칼라브샤 사원, 필레, 고대 화강암 채석장과 미완성 오벨리스크, 이슬람 공동묘지, 고대 도시 엘레판티네의 폐허, 성 시메온 수도원, 고대 왕국과 중세 왕국의 무덤(쿠바트 엘 하와(Qubbet el-Hawa)) 등 10개의 유적이 포함되어 있다(WHC 2022). 이 세계유산은 이집트 문명의 모든 시대와 단계에 대한 중요한 뿌리가 되고 있다.

아스완 하이 댐 건설 이후 높아지는 수위로 인해 수몰 위기에 처한 누비아 유적을 보호하고자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시행된 유네스코 국제 캠페인 이후에는 근대 국제 협력의 증거가 되었다. 누비아 유적의 이전은 수몰 위기에 처한 사원과 발굴지를 가능한 한 많이 기록하고 구조하며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산 보존이 공동의 책임이며 경제 발전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본보기를 보여줬다. 무엇보다 이 캠페인은 세계유산협약의 초안 준비로 이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누비아 유적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고대 이집트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유적지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고고학자와 유적지를 자신들의 역사로 바라보는 이집트인 등이다. 현재 이집트 남부와 수단 북부에 위치한 누비아 유적의 절반은 본래 고대 누비아에 속했기 때문에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누비아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집트 사회를 구성하는 누비아 공동체는 이집트 문화의 풍요로움에 기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한 문화 관습과 전통, 언어가 있으며 이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아부 심벨에서 필레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사원들은 누비아인들의 정체성의 일부이며 이집트 문명이 고대 누비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증거이다. 이 사원은 그들의 고대사와의 관련이 있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유일하게 보존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누비아인이 후손에게 들려줄 추억이 있다. 또한 지역 주민 대부분은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유네스코 캠페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삶의 원천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2. Nubian Monuments from Abu Simbel to Philae. <https://whc.unesco.org/en/list/88/maps> (accessed 30 November 2022).

아부 심벨에서 필레까지 이어지는 누비아 유적 주변에 거주하는 누비아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지역 가이드, 뱃사공, 박물관 소유주, 고고학자 및 학생이기도 한 이들은 세계유산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들려준다.



Bassam Fikery

- 📍 귀족들의 무덤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나그 알-큐바(Nag Al-Qubba), 아스완 서부
- 🌐 누비아 게스트하우스 주인, 뱃사공

“나는 어린 시절 내내 고왕국과 중왕국의 무덤 주변에서 놀며 해가 질 무렵이면 그 안에 몰래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관광업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17살에 뱃사공이 됐습니다. 저는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하이댐 건설로 인한 침수로부터 누비아 사원을 구조하기 위해 벌인 유네스코의 캠페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스완에 있는 대부분의 유적지는 누비아, 필레, 아부 심벨, 엘레판티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이집트 역사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념물들은 저와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아스완의 관광업은 이러한 유적지들을 방문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은 이 유적지들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옵니다. 관광객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에 매료됩니다.

“저에게 유산이란 생계이자 미래이고 재산입니다.”



Holger Kockelmann

- 📍 독일
- 🌐 라이프치히 대학교수, 필레 신전 문자 사업책임자

“필레는 이집트와 누비아 사이에 종교적 사상과 개념을 잇는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의 다른 성소들과도 긴밀한 지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필레의 상형 문자 양식을 연구하고 출판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탐구합니다.”

필레는 이집트의 종교, 숭배의식 및 의식절차, 상형문자 체계, 민중 문자와 그리스어로 쓴 낙서, 그리고 이집트 말기 왕조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저의 특별 관심 분야가 한 곳에 녹아 있습니다. 필레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항상 “이집트의 진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레 신전은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사원 벽에 스며들어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필레 신전에 있어 다소 유리한 환경입니다.

필레의 스폴리아(또는 장식용 조형물)는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 신전의 암석은 섬 전체에 흩어져 있다가 특정 건물의 석조 내부에 재사용되었습니다. 아스완 고대 유물 사찰단(이집트 관광유물부) 및 누비아 유산 기금과의 협력 사업 덕분에 분리된 조각들을 완벽한 조건에서 분류하고 문서화해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유산이란 절대 매력을 잃지 않는 글, 그림, 건축 및 아이디어를 이루는 퍼즐입니다.”



**Mohamed Sobhi
Abd el-shak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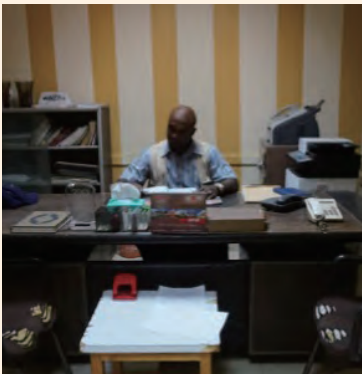
📍 엘레판티네 섬
🌐 애니멀리아 박물관 주인

“어린 시절, 유산에 관심이 없던 저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 장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유적지들은 저의 사랑이자 열정이며 유산입니다.”

저는 애니멀리아(Animalia) 박물관의 주인입니다. 누비아의 유산, 문화, 관습과 전통, 미신 그리고 누비아의 모든 것을 위해 2004년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이드로 일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집트학을 공부했습니다. 다국어 가이드가 되기 위해 책과 카세트 테이프를 스페인어를 독학했으며 2년 후에는 영어도 배웠습니다.

유네스코의 구조 캠페인은 저의 문화유산을 지켰습니다. 누비아는 캠페인 이전만 해도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캠페인이 펼쳐지는 동안 전 세계가 누비아의 유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이집트 현지와 전 세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비아 유적 보존을 요청한 유네스코와 Tharwat Okasha(역자: 이집트의 작가이자 전 문화부장관)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유산이란 제 자신입니다.”



**Mohammed Hamdy Rabea
Gomaa**

📍 가르브(Garb) 아스완 마을, 아스완 서부
🌐 누비아 기금 사무소,
누비아 고대유물 총책임자

“처음 이 사원에서 일했을 때 느꼈던 긍지, 매력, 위대함은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집트학 전문가로서 서부 아스완과 같은 유적지들은 물론 돌을 깎아 만든 고대 누비아의 사원과 같은 세계유산 현장에서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17개의 사원의 존재는 저에게 있어 누비아와 이집트 간의 아주 오래된 관계, 연결 및 협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누비아를 넘어서까지 확장되었다는 역사적 증거이며 다른 문명과 협력과 소통이 이뤄졌음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유산인 누비아 유적을 지키기 위한 유네스코의 국제 캠페인에 많은 국가가 참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캠페인의 결과로 Gamal Abdel Nasser 전 대통령은 구조 과정에서 참여국들이 기울인 엄청난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일부 사원을 몇몇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류애와 통합의 상징이자 이 사원이야말로 전 세계의 공동 재산이자 유산임을 보여줍니다.

유적지를 보존하려면 그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유적지의 중요성과 그것이 그들의 역사를 대표하고 미래 세대의 유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계유산 관리자들은 방문객을 언제든지 응대하기 위해 훈련된 직원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이드 역시 유산의 정보를 바르게 해석하고 방문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경험을 방문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이 고대 누비아가 존재했던 장소를 찾을 때, 살아 있는 누비아 유산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제게 유산이란 저의 자녀, 손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조상들이 남겨주신 보물입니다.”



Nourhan M. Eldemerdash

📍 누비아 아스완
 🌐 카이로 관광 가이드,
 한국 민속예술 관련 유학 중

“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초능력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유적지를 방문할 때마다 제 주변의 모든 세계가 잠시 멈춘 듯합니다. 저는 매일 세계를 감동시키는 역사적 기적을 바라보면서 몇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스완 유산을 사랑합니다. 저는 특히 아부 심벨 출신이고 제 친척들은 아부 심벨 사원의 경비원이어서 이곳의 역사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스완 사원이 중요한 명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위치, 독특한 날씨, 아름다운 풍경에 더불어 두 개의 사원은 아스완을 매우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하는 누비아 사람으로서, 제 소개를 할 때마다 제 고향과 아스완 사원이 저를 어떻게 꿈의 직업으로 이끌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유적지 안에서 저는 생기를 느낍니다. 거대한 벽의 모든 광경에서 조상의 위대함을 봅니다. 저는 그곳이 마치 집과 같습니다.

“저에게 유산이란 제 정체성입니다.”



Ramadan Wahby

📍 필레에서 약 300m 떨어진 헤이사 섬
 🌐 뱃사공

“새로운 섬은 지금 사람들이 발음하는 Agilika가 아니라 “ay gi jilika”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의미의 누비아어입니다.”

저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고 집은 필레 신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스완 하이댐 건설 이후 사원은 거의 1년 내내 물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억 중 하나는 필레 신전의 이전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섬 주변에 한 쌍의 강철판 줄을 만든 다음 압력 시스템을 이용해, 두 줄 사이의 파이프를 통해 살랄에서 이송된 모래와 물 혼합물을 넣었습니다. 물 펌프를 이용해 필레를 배수한 다음 신전의 진흙과 토사를 제거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두 형제와 다른 친척들이 신전에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런 다음 돌에 번호를 매겨 엘살랄로 옮긴 다음 새로운 장소를 평평하게 포장했습니다. 새로운 섬이 위치가 더 높았기에 원래 섬과 높이를 똑같이 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포장 작업 후 신전을 현재 장소에 다시 쌓았습니다. 새로운 섬은 지금 사람들이 발음하는 Agilika가 아니라 “Ay Gi Jilika”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저를 기억해 주세요’를 뜻하는 누비아어입니다.

예전에 필레가 범람했을 때, 저는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사원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배를 타고 사원을 방문한 제게는 그곳이 매우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지만 물은 사원의 보존에 좋지 않았고 댐 건설로 인해 그곳은 거의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전 사업 후 물이 사원을 덮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젠 옛 기억이 됐습니다.

“저에게 유산이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2 진행 사업

2022년 1월에 설립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센터의 웨비나 및 행사는 센터 YouTube,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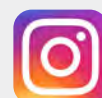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8월	2022 WHIPIC 강연 및 웨비나 시리즈: Bridging the Gap 50 year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5월	대한민국·유네스코,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협정 체결	9월	2022 국제문화유산업전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해석과 설명 용어 사용, 관계 정립, 개념 및 정의 도출을 위한 문헌연구,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국제전문조사, 학술컨퍼런스 운영		2022 WHIPIC 강연 및 웨비나 시리즈: Human-Nature Coexistence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7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산 해석과, 세계유산 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점 관련 연구 및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3회) 개최	10월	2022 WHIPIC 강연 및 웨비나 시리즈: For Sustainable Heritage Interpretation: Public-Friendly Presentation
	세계유산 해석 설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2022 WHIPIC 강연 및 웨비나 시리즈: Interlinking the Tangible and Intangible including Memories in Heritage Interpretation
	세계유산 해석 전략 수립을 위한 갈등 세계유산 사례연구	11월	개발과 보존의 간극을 잇는 유산의 해석설명 작업회
	유산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한국의 세계유산 OUV 속성 기초 조사 (국내 세계유산 15건 대상)		세계유산협약 50주년 기념 '2022 세계유산해석설명국제포럼'
8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역량강화 현황조사 및 방법론 연구	12월	2022 WHIPIC 강연 및 웨비나 시리즈: The Directions of Heritage Interpretation in World Heritage Policy
	세계유산 설명의 다양한 방법론 조사 및 중장기 사업화 전략 연구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전문가 인식 제고 사업 교육
8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국제 라운드테이블 유산 해석과 설명에 있어서의 연대: 경험의 공유와 교훈의 확산	12월	세계유산협약 50주년 기념 연구도서 발간 'World Heritage: 50 Years and Moving Forward'



WHIPIC YouTube



WHIPIC facebook



WHIPIC Instagram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롱베이, 베트남, 약 1600개의 크고 작은 섬을 포함하고 있다. 석화암 기둥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서식종으로 생물학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UNESCO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1945년 창설된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
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한 국제
협력과 연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
코는 마음속 평화 방벽을 세우는 데 문화를 이
해하고 교육을 통해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ORLD HERITAGE

인류에게 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
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에는 기술, 자원, 연구
등 다양한 면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했습
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협약국들과
함께 전 세계에 위치한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
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세계의 탁월한 보편
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을 보호하는 해당 협약은 현재까지 가장
활성화된 국제협약으로 인식되며 전 세계유산
관리와 보호 관행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UNESCO WHIPIC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전 세
계를 대상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
한 유산의 이해 증진과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입니다.
센터는 연구, 역량강화, 정보화, 네트워크 기능
을 통해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발
굴하고 이를 일반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문화
간 화해를 도모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NTERPRETING WORLD HERITAGE

